

가정교육에 대하여

나 운 영

'인격이 없다', '교양이 없다'는 말보다 '가문이 나쁘다', '가정교육이 나쁘다'는 말을 나는 가장 모욕적인 언사라고 생각한다. 최고 학부를 우등으로 졸업했으나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탓이다. 반대로 학교 문전에도 가 본 일이 없지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 이것은 가정교육을 잘 받은 탓이다. 물론 학교교육, 사회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있어서 항상 그 바탕이 되는 것은 가정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베토벤은 별로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리히노프스키 공작의 집에서 10년간이나 기거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가정교육을 받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대성케 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나는 일곱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비교적 철저한 가정교육을 받아온 셈이다. 남을 욕하지 말 것, 조용조용히 다닐 것, 음성을 높이지 말 것, 싸움을 하지 말 것,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정복(正服), 정모(正帽)를 할 것, 술 담배를 멀리할 것, 극장에 가지 말 것, 소설책을 읽지 말 것, 무슨 일이 있든지 외박을 하지 말 것 등등 ... 이 모든 계명(?)에 대하여 나는 반항은커녕 그야말로 「이유 없는 복종」을 하며 자랐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이런 것은 예의, 윤리, 도덕 등 도의(道義) 교육에 너무도 치중된 느낌이 없지 않다.

가정교육에는 이 「도의 교육」 이외에도 「종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베토벤이 모든 인생고를 초월하게 된 것은 그가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며 그가 불멸의 작품 — 〈제9 교향곡〉과 〈현악 4중주곡〉(작품 135번) — 을 남기게 된 것도 종교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어린 시절에 종교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그러나 나는 항상 어머니의 무섭고도 인자하신 모습을 잊을 수 없으며 생전에 효도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세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나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의 교육」, 「종교 교육」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술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즉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려면 — 아니 인생의 참다운 맛과 멋을 알려면 예술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가정주간」을 맞이하여 나는 가정교육으로서의 「도의」, 「종교」, 「예술」 교육을 여러분에게 권해 드리고 싶다.

< 1963. 5. 8. 동아일보 >